



마음이 바뀌면 인생도 바뀐다

⑬ 인과를 벗어나는 법

남편과의 갈등

K씨가 절에 다니게 된 것은 3년 전 남편이 일 자리를 잃게 된 후였다. 애들 학비와 생활비를 감당하기 힘들어 화장품 방문 판매를 나서게 되었다. '남의 돈 벌기가 이리도 힘든구나.' 마음으로 울며 지내던 어느 날 발길이 우연히 닿은 곳이 절이었다. 경내에 들어선 순간 갑자기 마음이 가벼워지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무거운 화장품 가방의 무게도 느끼지 못한 채 발담까지 가게 되었다. 다른 사람들을 따라 절을 올라는데 그렇게 마음이 편해질 수가 없었다. 마냥 좋아서 한참을 앉아 있다가 집이 왔다.

저녁 식사를 한 후 이야기 끝에 "오늘 절에 갔어요?"라고 하였다. 아무 생각 없이 한 말이었는데 남편은 발끈했다. "절에는 뭐 하러 가? 거기서 뭐가 나온다고. 그 시간에 돈이나 벌지." K씨는 화가 났다. "아니 절에 간 게 뭐가 잘못이에요? 마음 편하고 좋기만 하던데." "안 돼. 앞으로 다시는 가지 마." 어이가 없었다.

그래서 남편 몰래 절에 가게 되었다. 어느 날 저녁 경전을 읽다가 깜빡 잊고 그냥 놔두고 부엌에 들어가게 되었다. 어느 틈에 왔는지 남편이 난리가 났다. "이게 뭐야. 당신 또 절에 갔어?" 이런 식으로 절에 가는 것을 싫어하였다. 초하루나 보름법회에 가는 것을 알고는 아침부터 나가지 않고 지켰다. 오전 법회시간에 못 가

게 점심까지 차려내라는 것이었다. "그까짓 절에 가면 뭐 해! 돈이 생기기 싫어, 당신 사람이 달라지나. 무엇 때문에 가는 거야!"하고 구박했다. 도반들이 집에 전화를 하면 "우리 집 사람은 절에 안 가니까 연락하지 말아요!"하고 호통을 쳤다.

전생의 내 모습은

말로는 이길 수가 없어 막무가내였다. K씨는 부처님께 간절히 기도하게 되었다. "부처님, 저

이 기쁘게 마중을 가려고 하는데 자기가 가지 말라고 소리를 지르는 것이었다. 일해야지 무엇 하느냐고 호통을 쳤다. 하인들은 겁에 질려 가지 못했다. 스님은 합장을 하시더니 그냥 가셨다. 장면이 계속 바뀌어도 스님만 오시면 못 본척했다. 하인들에게는 항상 거만하게 굴면서 막 대하는 모습이 영화장면처럼 나오고 있었다.

"전생인지 어떻게 아느냐고요? 그냥, 알 수 있어요. 뭐라고 말할 수 없지만 확실해요. 그런데 바로 저 자신이 그토록 스님을 멀리 하더니. 우리 집 남편에게 그렇게 심하게 대했다니 기가 막혔어요. 얼마나 분하고 속상했겠어요."

인과응보라더니, K씨는 현재 남편이 자신에게 대하는 것은 오히려 정도가 약하다고 생각되었다고 한다. 그 후로는 남편이 구박하면 '그래, 내가 하인으로 막 대했었지' 하며 '미안해요, 여보, 부처님, 죄송합니다' 하며 마음을 다스려갔다. 같이 싸우는 대신 따뜻한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 말을 하면서 원망하는 마음을 갖지 않았다. 절에 가서는 진심으로 참회하며 열심히 기도 정진을 하게 되었다. 어느 날 남편이 "당신, 사람이 변하는 것 같은데, 부처님 말씀이 좋기는 좋나 보지" 하더니 "나도 절에 한번 가볼까" 하는 게 아닌가.

절에 나가는 것 결사 반대하던 남편

참회하고 현실 받아들이니 "나도 절에 가 볼까?"

놓고 놓아 내가 녹아야 상대 녹일 수 있다

나부터 녹여야

우리는 수억 겁을 진화해 오면서 안 되어 본 것이 없고 안 해본 일도 없다고 한다. 따

라서 자신의 전생을 알지 않고서는 누구에게도 큰소리치지 못한다는 말이 있다. 어느 전생에 무명(無明)으로 인해 아상(我相)에 젖어 상대에게 어떤 업을 지었는지 모르기 때문이다. "놓고 놓아 내가 녹아야 상대를 녹일 수 있다"고 하였다.

같은 상대가 있을 때 그와의 인과에서 벗어나려면 상대만 탓하기 전에 자기 마음부터 바로 보고 다스려야 할 것이다.

황수경(동국대 선학과 강사)



부처님 감사합니다

내 안의 화를 이기고 (상)

이기용 서울시 은평구

조그마한 가게에 앉아 하루 종일 일을 하다 보면 점점 내가 작아지는 느낌이 듭니다. 스스로도 느낄 만큼 내 속이 움푹해짐을 느낄 때도 있지요. 그럴 때마다 염주를 돌립니다. 잠깐 틈이 날 때마다 관세음보살을 염하며 염주를 한 알 한 알 돌리다 보면 어느새 마음이 평안해짐을 느낍니다.

저는 경북 어느 시골에서 태어났습니다. 부유한 집안이라고는 했지만 제가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 어머니는 돌아가시고 거의 실명 위기에 있던 나 이 많은 아버지와 단 둘이 살았습니다. 나이가 많아 나는 손윗누이가 될 있었지만 이미 남의 집 사람이었고 전국으로 흩어져 만나기도 힘들었습니다.

간신히 초등학교를 졸업했지만 더 이상 학교에 갈 형편도 못 되었습니다. 가끔씩 부산에 살던 둘째 누이가 연락 오면 버스가 지나가는 큰 길에 나가 누이가 사주는 옷이나 약간의 돈을 받아 오기도 했죠. 자신도 살기 힘들어 장사하느라 바쁜 누이가 시댁의 눈치를 보며 몰래 몰래 모은 돈으로 사온 옷이었습니다.

누이는 늘 시간에 쫓겼습니다. 같이 밥 놓고 단란 것도 아니고 그저 버스가 큰 길을 지나갈 때 버스 창문 밖으로 돌돌

뭉은 머리를 던져주고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스쳐지나가듯 잠깐 누이의 얼굴을 보는 짧은 순간이었지만 어린 마음에 그렇게라도 누이를 만나면 낯은 행복했습니다.

좀 더 큰 누이에게 들어서야 왜 그때 누이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는지 알았습니다. 의처증이 있던 매형은 누이가 타도사로 물건을 사러 나가면 버스 시간까지 재머 기다렸다고 했습니다. 어린 동생 만나러 갈 시간조차 주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자식같이 생각하던 동생을 한 번 안아봐 주지도 못하고, 아버지 얼굴 한 번 편히 볼 수 없어 누이의 가슴은 피멍이 들었을 겁니다.

아버지도 돌아가시고 그저 으름으로 살기 위해 몸 부림했습니다. 누이들에게 기댈 수도 없었고 나 혼자 살아남기 위해 무슨 일든 약삭같이 했습니다. 배운 것도 없고 나이 어린 저를 누가 써주겠습니까.

보일러 기술을 배우기 위해 몇 년을 그 바닥에서 일했습니다. 처음부터 기술을 배울 수는 없었던 시절이었죠. 틈틈이 등 너머로 보면서 조금씩 보일러 기술을 익혔습니다. 손재주는 있었던 저는 다른 사람보다 빨리 배우는 편이었습니다.

어리다고 무시당할 때마다 다시 무시당하는 일

없이 살아야겠다고 마음먹으며 꾀꾀 눌러 참았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기술을 배우던 저의 주변으로부터 일처리가 꼼꼼하고 손끝이 아플다는 소리를 들으며 보일러 설치물 저에게 맡기고자 하는 고객들이 많아졌습니다. 정말 뿌듯했습니다. 초등학교밖에 못나온 제가 기술자가 됐으니 얼마나 스스로가 자랑스러웠는지 모릅니다.

어느 정도 보일러 기술로 먹고 살만한 저를 제가 있는 곳보다 넓은 곳으로 가고 싶었습니다. 이 좁은 곳에서 인정받아야 봐야 더 나은 삶을 꿈꿀 수 없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습니. 지금 가지고 있는 기술 정도면 서울에서도 인정받을 것 같았습니다.

무작정 상경했습니다. 아는 사람 하나 없는 곳에서 살기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보일러 기술공으로 일하려 했지만 시골에서 먹었던 기술이라 저를 써주는 곳이 없었습니다. 먹고는 살아야겠고 식당에서 허드렛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음식 하는 것을 좋아했던 저는 식당에서 일을 하면서 틈틈이 요리를 배웠습니다. 처음에는 설거지만 하는 생활이었지만 성실한 제게 조금씩 아재도 다듬고 칼도 쥐어보는

기회가 온 거죠. 조금씩 돈을 모으면서 앞으로 식당을 해보려 할까 하는 꿈도 가지게 됐습니다.

서울에 살면서 차레차레 상경한 다른 누이들과 오랜만에 한 지역에 살게 됐습니다. 전국으로 흩어져 살 때보다는 좀 더 자주 볼 수 있어 위안이 됐습니다. 하지만 도움을 바랄 수는 없었습니다. 누이들도 살기에 힘겹기는 마찬가지였으니까요. 그런 사정을 알면서도 고등학교에 다니는 몇 살 차이 나지 않는 조카를 보니 왜 나는 누이들이 공부시켜 주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머니는 어린 외삼촌 셋바라지 하느라 자식도 뒷전이었는데 왜 누이들은 어머니처럼 해주지 않는 것일까 하는 생각에 외삼촌과 저를 비교하며 괴로움에 시달렸습니다.

남들 공부할 때 하지 못했던 한이 내 안에 차곡차곡 들어차있었던 겁니다. 그러한 한이 먹고 살기에 공부한 이들보다 못하다는 생각에 사로잡혀자 나를 공부시켜 주지 않았던 누이들에게로 향했습니다. 집이 부유할 때 부잣집으로 시집갔다가 한국전쟁 이후 어렵게 살던 누이에게도, 집안이 몰락해 빚을 갚느라 팔려가듯 시집간 누이에게도 원망만이 쌓여갔습니다. (계속)



그림: 문병성

기난했지만 성실히 기술 배워 상경

배우지 못한 설움...누이들 원망

닌 행 게 니 판

난치병 어린이 돕기 3000배 정진기도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은 난치병 어린이를 돕기 위해 1년 전 할 때마다 100원씩 모금하는 3000배 정진기도법회를 개최한다. 일곱 번째 열리는 '난치병 어린이 돕기 3000배 정진기도'는 5월 4일 오후 7시부터 5월 사흘 4시까지 서울 조계사 대웅전에서 열린다. (02)723-5101

한미음선원 건강은빛교실
인양 한미음선원 본원이 65세 이상 남녀 신도들을 위한 레크리에이션 프로그램 '건강은빛교실'을 개최한다. 5월 중 매주 금요일에 열리

게 되는 건강은빛교실은 건전한 레크리에이션을 통해 어르신들의 건강한 몸관리를 지도한다. 오전 9시 30분-10시 30분에 안양 한미음선원 심봉정에서 열린다. (031)470-3173

도선사 어린이 사생대회
서울 도선사가 5월 5일 어린이날을 맞아 어린이 사생대회를 개최한다. 도선사 경내 일대에서 열리는 사생대회는 부처님오신날 봉축의 의미도 함께 담았다. 오전 10시 개회식을 시작으로 경내 어디서나 그림을 그리면 된다. 그림 도구는 개인이 지참해야 한다. (02)993-3161

해인사 제2회 해인만다라 글·그림 잔치
함천 해인사는 5월 12일 오전 11시~오후 4시 제2회 해인만다라 글·그림 잔치를 개최한다. 참가 가능한 분야는 그림부문이 수채화, 유화, 크레용화, 판화, 만화, 한국화, 조소, 공예 등이며 글짓기 부문이 시, 수필이다. 유치원생부터 중학생까지 참가 가능하며 차량료, 점심, 간식, 보험가입, 행사소모품 등 일체경비는 해인사에서 부담한다. 접수는 5월 4일 오후 5시까지 해인사 홈페이지 (www.haeinsa.or.kr)에서 받는다. (055)931-1001

신 보다 완성도를 높인 『補正版 발매개시』

마음의평화가 행복을 소망하는 애들이 행복을 얻어냈다.

유식학

유식사상연구회 교목지음

유식학은 일상생활 속으로 과학과 진리와 종교를 한꺼번에 아우르는(새로운 밀레니엄 길잡이)이다. 내 몸과 마음을 알고, 사물과 세계와 우주를 알고, 그 지말과 근원을 알아 진리에 부합하면서 이상세계를 지향해가는 길을 밝히고 안내하는 독보적인 안내서이다.

이 책의 특징...

- 유식학의 현대적의미 부각, 특히 현대물리학, 창조론과 진화론, 생명과학, 정신과학 등과 관련된 부분
- 유식학의 무한한 미래 가치 揭示
- 의식개혁·이상세계의 비전 제시
- 유식禪思想 釋明
- 자기발견·생활속 수행과 哲學 실용성·편의성 제고

◆ 구입문의

- 전국불교서점·유명서점
- 총판 : (02)3672-7181
- 유식사상연구회 (055) 353-6142 010-2356-6142

초판 매진 감사합니다. 출판 미르아오

사찰 연등 및 전선 (법당용 외곽용)

불제 대원기업은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불자 기업입니다.

장엄용(법당) 전기초

- ▶ 화재 위험이 거의 없다.
- ▶ 그늘음과 납성분의 위험이 있는 일반초와는 달리 무공해임
- ▶ 시간 조절 가능

불제대원기업

구입문의 (031) 986-0277~8 (02)2266-2634, 2263-2638
 구입문의 (032) 582-6235~6 구입문의 H.P 011-630-7092
 http://www.bulje.co.kr 공장 : 경기도 김포시 장기동 475

전선 간격
22cm, 25cm, 28cm, 30cm, 40cm, 50cm, 1M, 2M, 3M, 5M, 8M, 10M 기타주문

생산에서 시공까지 책임지겠습니다.

사찰 LED전구(정품)

- ▶ 고추전구, 인지전구(정품)
- ▶ 법당용, 외곽용
- ▶ 할라멘트가 아닌 반도체로 되어 반영구적이다.
- ▶ 반도체로 되어 화재와 전기소모가 거의없다.
- ▶ 소켓 AC220V용으로 다용도로 사용

사찰 램프전구(정품)

- ▶ 고추전구, 인지전구(정품)
- ▶ 종류: 3W, 5W, 10W
- ▶ 특 할라멘트로 빛이 윤택하고 절전효과가 있다.

건전지충족, 방생, 탐들이 행사용, 청사초롱 및 초롱 곁이대

연 등(정품)

법당등(공판등), 영가등, 오색등, 황금등, 주름등, 특수등

군사찰, 법당, 외곽, 연등용 전선 시공